

바이오오케스트라에 50억 투자

종근당홀딩스, 치매 치료제 개발

마이크로RNA 기반 바이오 치매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보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박차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와 협약을 맺고 마이크로RNA를 기반으로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및 진단기기 개발에 50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50억원에 매입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파킨슨과 루게릭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오케스트라는 RNA 신약개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기업으로 마이크로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 알츠하이머형 치료제 BMD-001를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RNA는 생물의 유

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RNA로 유전자 정보전달을 억제하고 각 세포마다 발현하는 단백질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BMD-001은 자체 개발 약물 전달체를 통해 뇌혈관장벽을 통과해 뇌면역세포의 대식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독성단백질을 제거하고, 면역세포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다중 표적 기전의 신약이다.

종근당홀딩스는 바이오오케스트라의 전달체 플랫폼 기술을 비롯해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마이크로RNA 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와 진단기기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물질탐색과 전임상 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편당하는 시리즈 B 투자(물질탐색 및 전임상 단계의 연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

펀딩)로, CKD창업투자과 데일리파트너스, NHN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이엔벤처, LSK인베스트먼트 등 유명 벤처투자사들과 함께 진행된다.

종근당홀딩스 우영수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바이오오케스트라의 우수한 기술과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며 마이크로RNA 기반의 바이오 신약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바이오 신약 분야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표는 "종근당의 전략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종근당과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서울신라호텔, 이른 추석에 예약률 쑥쑥

예약 15% ↑... 특별 이벤트 진행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추석연휴에 호텔 객실 예약률이 일찌감치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에 따르면 21일 기준 추석연휴(9월 12~15일)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 예약률에 비해 약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연휴로 인해 고향 방문 후 도심 휴가를 즐기려는 고객들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마지막 여름을 즐기려는 수요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텔업계에서는 추석 연휴에만 선보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홀리데이 와이너리' 패키지를 운영한다. ▲더릭스 룸(1박) ▲더

파크뷰 조식(2인) ▲어번 아일랜드 올데이 입장 혜택(2인) ▲홀리데이 와이너리 입장 혜택(2인) ▲체력장(Gym), 실내 수영장 혜택(2인) ▲신라 베어 키링(1개)로 구성됐다.

'홀리데이 와이너리'는 대면회장 다이너스티에서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9시에 열린다. 감미로운 재즈 콘서트와 크래프트 체험 프로그램, 와인과 마리아주 안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연간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다.

패키지에는 서울신라호텔의 야외수영장 '어반 아일랜드' 올데이 입장 혜택도 포함돼 있다. 온수풀로 운영돼 늦여름~초가를 날씨에도 따뜻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추석 기간 동안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동화약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동화약품이 로이드 인증원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에 대한 통제와 방지 방침을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ISO37001 내부 심사원 선임 및 TF 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 사내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해 부서별 부패 리스크 식별 및 분석, 평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

이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BMS(부패방지 경영시스템) 및 CP(공정거래



동화약품 박기환 대표이사(오른쪽)와 로이드인 증원 유상근 대표가 지난 20일 동화약품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에는 'ISO37001 도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세경 기자

'기무치 비켜'... 풀무원 '한국산 김치'로 美 공략

미국 대형유통업체 크로커에 입점 1만개 판매처 확보 등 유통망 넓혀

한국에서 생산하는 풀무원의 '한국산 김치'가 미국 전역 대형 매장부터 슈퍼마켓까지 1만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풀무원식품은 풀무원 김치가 미국 유통업체인 크로커(Kroger)에 입점, 글로벌 최대 유통사인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현지 양대 유통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 1만개 판매처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익산 '글로벌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풀무원 김치는 지난 6월 월마트 3900개 매장과 미국 동부 유통 강자 퍼블릭스(Publix) 1100개 등 5000개 매장에 입점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형유통인 크로커와 세이프웨이(Safeway), 푸드라이온(FoodLion) 등 추가로 5000개 매장에 더 입점해 미국 내 총 1만개 매장에서 한국산 김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특히 풀무원은 미국 총 20여개 유통사와 협의하면서 대형 할인점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미국 대도시부터 카운티(County), 타운(Town) 등 지역 마을 단위가



지 한국산 김치를 입점시킨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김치를 판매할 여건이 갖춰진 점포 수는 약 2만개 정도다. 이미 절반가량 입점에 성공한 풀무원 김치는 더 나아가 매장 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풀무원 김치가 미국에서 통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한국산 김치' 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저가 김치, 일본의 기무치 등 한국 전통김치와 특성, 품질에 차이가 큰 현지 생산 제품이 시장에 난입하는 가운데, 풀무원은 우리의 김치를 제대로 바르게 알리겠다는 포부로 지난 5월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글로벌김치공장을 준공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풀무원의 '한국산 김치' 전략은 원료 산지 및 생산지가 중요한 발효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김치는 온도 및

숙성도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현지 생산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치는 대표 한식이자 발효식품으로서 국내 생산이 중요하다.

우선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품종과 생육환경이 나라마다 달라 한국 김치 본연의 맛을 해외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배추는 한국 육종학의 아버지 '故 우장춘 박사'가 국내 환경에 맞게 개량한 품종으로 해외 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하더라도 기후와 토양 등 생육 환경이 달라 국산 배추, 무와 맛 차이가 난다.

또한 발효식품인 김치는 숙성과정에서 토양과 공기 중의 토착 미생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김치를 생산하더라도 국산 김치만의 발효미와 감칠맛을 내기 어렵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온라인서도 360도로 꼼꼼하게 쇼핑"

엘롯데 '360도 상품 기획전'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가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엘롯데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상품의 모든 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360도 상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360도 상품 기획전'에서는 상품을 다

양한 각도에서 확인 할 수 있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의 단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상품을 360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신원선 기자

빈폴스포츠, 2030 감성 담은 '액티브 라인'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스포츠는 올 가을·겨울(F/W) 시즌 핵심 상품으로 젊은 감성의 패셔너블한 '액티브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빈폴스포츠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목하고 있는 운동과 웰니스 트렌드를 고려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B 트랙(B.TRACK) 트레이닝 시리즈를 출시했다.

러닝 트랙을 연상케하는 새로운 로고와 액티브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트랙 점퍼, 크롭 후드, 조거 팬츠, 티셔츠, 쇼트 팬츠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부드러운 촉감의 이중지 원단을 사용해 땀 흡수력을 높이는 한편, 보온력까지 챙겼다. 또 스트레칭성 소재를 사용해 가벼운 조깅부터 활동성을 필요



로 하는 액티브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서 기자

JW메디칼 '국제병원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JW메디칼이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주요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메디칼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에서 ▲3D 유방촬영기 ▲64채널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3.0T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디지털엑스레이 등 총 8개의 최첨단 영상진단 의료기기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개되는 3D 유방

촬영기 '쓰리디멘전스(3DIMENSION)'는 서양인에 비해 조직이 치밀한 한국 여성 환자를 위한 최적의 유방암 조기진단 장비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해 2D 제품 대비 유방암 발견율을 40%(JAMA논문 인용)까지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곡선형태의 패들을 적용해 유방 압박 시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JW메디칼은 CT, MRI, 초음파 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 다양한 영상진단장비도 소개한다. /이세경 기자